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9



▶ 80회 예고
아쇼까왕은 날마다 연회를 연다. 승리한 대군들은 다야강 강변에서 휴식을 취한다. 다울리 언덕까지 끌고 온 이동법당에서 삿다 장로는 법문을 한다. 이때 아쇼까왕은 세상을 담마로 정복하는 전륜성왕이 되겠다고 맹세한다.

아쇼까왕, 다야강에 칼을 버리다

마우리아국 기마부대 5만 명은 바람처럼 거침없이 달리다가 멈추었다. 기마부대장이 손을 들어 수신호를 보냈다. 순간, 깔링가국 보병이 쏘는 활들이 허공에서 비 오듯 쏟아졌다. 기마대장이 전령에게 지시했다.

"활 공격이 주춤해질 때까지 공격을 멈추어라."

"대장님, 대왕님께서 탄 코끼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대왕님께서 대노하실 것입니다."

"알았다. 공격하라!"

아쇼까왕의 기마부대 5만 명 중에 장창을 든 기마병이 먼저 달렸다. 깔링가국 군사들의 화살은 조금 전보다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전술이었다. 기마부대 장창기병이 가까이 다가가자 일제히 화살공격을 했다. 그러자 십여 마리의 군마가 화살을 맞고 나뒹굴었다. 기마병들도 목에 화살을 맞고 군마에서 떨어졌다.

깔링가국의 방어선은 뚫리지 않고 견고했다. 피아간에 살상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반나절 동안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2선에서 피아간의 공방을 보고 있던 아쇼까왕이 기마부대장을 불렀다.

"대장, 5만 명의 기병을 더 줄 테니 정면공격을 하면서 양쪽 측면도 공격하시오. 그러면 적들이 방어대오가 흐트러지면서 동요할 것이오."

1진 기마병들은 예비대로 빠졌던 2진이 올 때까지 전열을 가다듬었다. 군마와 군사를 조금 잃었지만 아직은 사기가 충천한 상태였다. 이윽고 2진이 오자마자 아쇼까왕은 기마부대 5만 명을 깔링가국 보병의 정면, 2진 5만 명은 두 부대로 나누어 측면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두려워 말고 노도와 같이 공격하라!"

"적군은 예상치 못한 측면공격에 무너질 것이다!"

10만 명의 기마부대이므로 전술이 가능한 정면공격과 양동작전이었다. 아쇼까왕의 명을 받은 10만 명의 기마병들은 깔링가국 보병 10만 명을 세 군데서 일제히 공격했다. 그제야 깔링가국 보병들이 정면방어만 하다가 갈팡질팡 흔들렸다. 한쪽 측면이 무너지자 맥없이 방어대오가 무너졌다. 이윽고 기마병들이 장창과 긴 칼을 휘두르며 깔링가국 보병들의 목을 베기 시작했다. 그때 전투코끼리를 탄 아쇼까왕이 전령참모를 불러 지시했다.

"기마부대장에게 전하라! 전투코끼리가 돌진할 수 있도록 양옆으로 후퇴하라고 알려라!"

명령을 받은 기마부대 1진, 2진이 양옆으로 재빠르게 물러섰다. 작전상 후퇴였다. 아쇼까왕은 기마부대가 깔링가국 보병의 방어대오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음 작전은 코끼리부대에게 맡겼다.

코끼리부대 작전은 잔인했다. 비탈에서 바윗덩어리를 굴리는 것처럼 인정사정없었다. 성난 전투코끼리들은 깔링가국 보병들을 짓밟고 종횡무진 미친 듯이 달렸다. 그러자 피투성이가 된 깔링가국 보병들의 다리와 팔이 으깨어지고 배가 터져 긴 창자들이 허옇게 튀어나왔다.

다야강을 건너지 못한 깔링가국 보병들은 화살이 떨어지자 방패와 장창을 들고 옥쇄작전을 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둥그렇게 진을 짜고 장창을 휘두르며 아쇼까왕의 기마병과 코끼리부대 군사와 맞섰다. 아쇼까왕이 진노했다.

"마우리아국 군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마!"

아쇼까왕이 진노하자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가 더 거세게 번갈아가며 공격했다. 살상자들의 핏물이 강변 모래밭까지 붉게 적셨다. 결국 깔링가국 정예보병의 전세는 오후 늦게야 꺾였다. 이윽고 아쇼까왕은 후선에 대기하고 있던 보병 30만 명을 투입했다. 아쇼까왕의 대군은 저항할 힘을 잃어버린 깔링가국 잔병을 소탕했다. 기마부대장이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님이시여, 다야강 건너편에서 저항하던 보병도 토멸했습니다."

"다울리 언덕 정상의 적군 지휘소는 어떻소? 그곳에 아직도 총사령관인 왕이 있지 않소?"

"다울리성의 적군은 독안에 든 쥐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군사가 포위하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퇴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있으니 오늘은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소."

다울리 언덕 뒤 깔링가국 도시의 동태를 살펴온 정찰대장이 보고했다.

"적 기마부대는 민가를 의지해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건 화공작전으로 소탕할 수 있으니 잘 됐소."

아쇼까왕은 깔링가국 기마부대가 민가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화공작전을 생각했다. 불을 지르면 깔링가국 기마부대의 기동성은 사라지고, 주민들은 살려고 도망쳐 나올 것이었다.

다야강 강변을 완전히 장악한 아쇼까왕 대군은 보병만으로 다울리성을 몇 겹으로 에워쌌다. 깔링가국 왕이자 총사령관이 밤사이에 퇴로를 만들어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은 대장들을 임시군막으로 불러놓고 차후 공격작전 회의를 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다울리 언덕을 가능한 한 빨리 점령하시오. 나는 적의 왕이 머물렀던 다울리성을 나의 지휘소로 삼겠소."

"먼동이 트는 시각에 보병을 투입하겠습니다."

"기마부대나 코끼리부대는 평야지대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다울리 언덕에서는 보병만 못할 것이오."

아쇼까왕은 보병대장에게 새벽공격을 허락했다. 코끼리부대장이 말했다.

"저희들은 기마부대와 함께 다울리 언덕 뒤편에 있는 도시를 공격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소. 나는 도시를 다 불태워버릴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우리에겐 포로도 필요합니다. 빠딸리뿌뜨라 외성을 완성하려면 많은 포로가 필요합니다."

"좋소. 내일은 오늘처럼 다 죽이지 않고 항복하는 적군이나 주민들은 포로로 삼겠소."

아쇼까왕은 호위대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작전회의를 막 끝낼 무렵이었다. 경비대장이 다울리성을 수성하고 있던 깔링가국 총사령관을 데리고 왔다. 왕의 신분인 그는 아쇼까왕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적장이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오?"

"대왕께 용서를 빌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대는 왜 나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오?"

"나는 두 가지의 죄를 지었소. 첫째는 나의 군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죄를 지었고, 두 번째는 마우리아국 위대한 대왕께 복종하지 않은 죄를 저질렀소."

아쇼까왕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흘렀다.

"어떻게 용서를 받고 싶소?"

"나를 죽이시오. 대신 깔링가국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바라오."

"나를 찾아온 것을 보니 그대의 말은 진심인 것 같소. 그러나 다울리 언덕 뒤편 도시에 숨어 있는 그대의 군사는 후환을 없애야 하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소. 나는 불을 질러 도시를 없애버리겠소."

"대왕이시여, 나에게 시간을 주시오. 나의 부하들을 만나서 설득하겠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가 아니겠소?"

"그대를 믿어 보겠소."

깔링가국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왕인 그가 나가자 정찰대장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왕님이시여,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돌아온다면 약속한 대로 반드시 내 칼을 받을 것이오. 대신 나는 그와 약속한 대로 깔링가국 백성들을 모두 살려줄 것이오. 다만 살아 있는 군사만 포로로 데리고 가겠소."

다음날 새벽.

깔링가국 총사령관과 함께 온 그의 기마부대장도 아쇼까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쇼까왕은 자신 앞에 나타난 깔링가국 총사령관과 어젯밤에 한 약속을 철회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왕과 왕이 한 말은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기 때문이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호위대장이 다야강 강변에 깔링가국 왕이자 총사령관을 처형하는 사형장 자리를 닦았다. 그때 아쇼까왕은 전투코끼리를 타고 다울리성 언덕 뒤편의 도시를 돌고 있었다. 위험하므로 수십 명의 기마병을 거느린 기마부대장이 앞섰고, 수십 명의 경계병을 지휘하는 경비대장이 뒤따랐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저 아이는 왜 이른아침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아이입니다."

"저 노파는 왜 웃고 있는 것이오?"

"어제 다야강 전투에서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노파일 것입니다."

아쇼까왕은 다울리 언덕을 돌아 다야강 강변으로 나왔다. 다야강 강변은 도시보다 더욱 참혹했다. 여기저기에 찢겨진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까마귀 떼들이 몰려와 까악까악 음산하게 우짖었다.

"대장, 여기에 있는 시신들은 얼마나 되오?"

"적군 보병이 10만 명이었으니 시신도 10만 구일 것입니다."

"깔링가국 왕의 말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소. 그는 내게 자기 군사를 사지로 몰아놓은 죄를 저질렀으니 죽여 달라고 말했소."

"패전한 총사령관이자 왕이니 당연히 대왕님 칼에 죽어야 합니다."

"살아남은 적군은 얼마나 되오?"

"15만 명입니다. 그것도 왕이 항복해서 살아난 목숨입니다. 포로로 삼아 빠딸리뿌뜨라까지 압송할 것입니다."

"호위대장."

"예, 대왕님."

"나는 선왕의 숙원인 깔링가국을 정벌했소. 깔링가국 왕이 항복했으니 나는 완벽하게 승리를 한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선왕의 숙원을 해결하셨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러나 아쇼까왕의 얼굴은 어두웠다. 호위대장이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아쇼까왕의 표정은 슬프기까지 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그렇지 않소. 미쳐버린 노파와 울부짖는 아이들, 까마귀 떼를 부르는 피투성이의 시신들,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포로가 되는 군사들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소. 나는 지금 큰 충격에 빠져 있소."

이윽고 아쇼까왕은 사형장이 만들어진 강변으로 갔다. 사형장 앞에는 마우리아국 대군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있었다. 사형장에서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은 군사들에게 승리의 쾌감을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깔링가국 왕이자 총사령관이었던 그의 두 눈은 검은 천으로 가리어졌고, 그의 두 손과 발은 밧줄에 묶여 있었다.

아쇼까왕은 마우리아국 총사령관이자 대왕으로서 위엄을 지키기 위해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이 차고 있던 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들었다. 긴 칼이 아침햇살에 번쩍였다. 순식간에 깔링가국 왕의 목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아쇼까왕은 피 묻은 칼을 칼집에 넣지 않고 강물에 던져버렸다. 아쇼까왕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도열해 있던 군사를 놀라게 했다.

"나의 군사들이여, 나는 오늘 이후부터 칼 대신 담마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니라. 담마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대장들이 한동안 어리둥절해 있다가 아쇼까왕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이동법당 수레 책임자 삿다 장로가 나와 짧게 외쳤다.

"고따마 붓다의 진리를 따르고 의지하는 대왕을 우리 사문들은 전륜성왕이라고 부릅니다."

칼을 버리고 담마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다는 아쇼까왕을 찬탄하는 삿다 장로의 짧은 법문이었다.〈계속〉



